

한국 경영현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재고-질적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김효근 *
이현주 **
문윤지 ***

.....

한국에 경영학이 도입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영학은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의 경영학 연구가 인식론과 연구방법론 차원에서의 실증주의 양적방법론으로 많이 진행되어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해석주의 질적연구방법론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한국 경영학 연구방법론의 연구동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던 질적 연구방법론을 재고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나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인간행위에 대한 목적, 동기와 같은 조직행위자의 관심 등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도외시되었던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다차원적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개념과 특징을 재정의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론이 경영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본질적인 "왜"의 문제에 대한 선행적 관심을 중심으로 프로세스와 변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서 그리고 총체적 관련성 및 상황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인식론적 차원에 입각한 질적방법론의 보완적 발전으로 향후 한국 경영학 연구방법론 연구의 균형적인 방향을 제안한다.

.....

I. 서론

국내에 서구식 현대 경영학이 도입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한국의 경영학은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영학회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학회가 설립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2000년도까지 30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외적으로 경영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이 같은 비약적인 발전단계 속에서 이제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경영학의 동향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 경영학의 지난 50여 년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여러 관점으로 고찰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영학의 연구방법론 측면을 중심으로 그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Key words : 질적연구방법론, 다차원적 프레임워크, 해석주의

-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수료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한국 경영학의 연구방법론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미국 경영학계와 유사하게 실증주의(Positivism) 양적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며(Evered & Louis, 1981; Orlikowski & Baroudie, 1991), 이러한 특성에 대해 현재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황호찬, 2000; 김인수, 2000).

Kuhn(1970)에 의하면 패러다임이란 과학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 가치, 기술 등 전체적인 구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특성에 따라 내적조사(inquiry of inside)와 외적조사(inquiry of outside)(Evered & Louis, 1981), 혹은 질적 패러다임(qualitative paradigm)과 양적 패러다임(quantitative paradigm)으로 분류된다(Deshpande, 1983). 어느 패러다임을 선택할 것인가는 물론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전자는 경험과 같은 인간행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등 어떤 '발견의 논리'(logic of discovery)를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후자는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실을 탐구하는 이른바 '입증의 논리'(logic of verification)를 목적으로 할 때 선택되어지게 된다(Deshpande, 1983). 이러한 양적 패러다임의 실증주의 접근은 자연과학을 원형으로 한 연장선으로, 미리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한 현상 속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함으로 연구자는 가치중립적으로 현상을 관찰하여 그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이를 일반화하게 된다(Chua, 1986; Orlikowski & Baroudi, 1991). 물론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불필요한 논쟁일 것이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나 연구방법론 모두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에 기반을 두고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흐름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방향에 집중되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경영현상 중 어느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제 지금까지의 경영학 연구는 대부분 실증주의 양적 패러다임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현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부분이 연구결과로 축적되게 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반면 부족한 점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양적 패러다임의 많은 연구들이 기존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추론해 나아감으로써, 한국이라는 특정한 문화, 역사, 사회, 비즈니스 상황 내에 그 이론이 적용되었을 때의 특별한 의미나 적용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인수, 2000). 즉 질적 패러다임이 밝혀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세팅 하에서의 인간행위에 관한 정의(definition),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조직행위자의 관심 등 질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게 탐구될 수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Evered & Louis,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중된 연구동향 실태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던 질적 연구방법론이 경영학에 적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함의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구방법론에 있어 실증주의 양적 패러다임으로의 편향된 현상이 어느 정도 인지를 1991년에서 2001년까지 경영학연구에 게재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이를 통해 실증주의의 부족한 측면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안되어오지만 국내 경영학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석주의와 반증주의와 같은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인식론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식론적 기반 하에서 구체적으로 양적 연구방법론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게 채택되어지고 있는 질적연구방법론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관해 고찰해 보자 한다.

II. 연구방법론 분류체계를 위한 다차원적 프레임워크 개발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있어 연구방법론에 관한 탐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기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체계나 분류기준이 포괄적이지 않다. 또한 <표 1>에 제시되어있듯이 연구방법론의 분류가 대부분 단순히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에 관한 일차원적 분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분류체계가 실증연구에 집중되어있고, 동시에 그 기준과 개념에 있어서도 혼란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구방법론 체계는 자료의 성질, 연구자 혹은 철학적 기반 등에 기초하여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채선희,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차원적이고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연구방법론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이를 다차원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해서 한국 경영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Chua(1986)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의 모든 이론들이 공유하는 철학적 가정이 있다고 전제한다. 즉 이론이란 지식의 집합체이며 이러한 지식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출되는 산물으로써, 지식이 결국 인간과 사회를 중재하게 된다는 것이다(Lowe & Tinker, 1977). 이 때 지식과 관련된 두 가지 가정이 인식론(epistemology)과 방법론(methodology)이다(Chua,1986). 인식론이란 '진리'(truth)를 측정해나가는 과정과 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로 결정할 것인지에 필요한 가정이며, 방법론이란 이러한 진리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타당한 증거를 모으는 적절한 방법을 지시하는 가정으로 단순한 방법 이상의 철학적 가정을 의미하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을 단지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분류하고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론이 추구하는 진리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간과한 채 피상적인 기술적(descriptive) 문제만을 다루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ua(1986) 연구와 이를 발전시킨 Orlikowski(1994)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다차원 프레임워크 - 인식론적 차원, 방법론적 차원 및 시차적 차원- 에서 규정한다.

<표 1> 일차원적 연구방법론 분류체계

기 준	일차원적 연구방법론 분류	연구자
연구문제	역사적 연구, 서술적 연구, 실험연구	Turney & Robb(1971)
연구방법	사례연구, 현장조사, 현장검정 및 실험실 연구	Van Horn(1973)
연구종류	비실증적 연구, 실증적 연구	Hamilton & Ives(1982)
과학적 조사방법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	채서일(1999)
연구목적, 주이론	기초연구, 응용연구, 평가연구	Miller(1994)

자료수집방법	이론증명, 엔지니어링, 실증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실험연구, 실험연구, 주관적이고 논쟁적인 연구	Vogel & Wetherbel(1984)
	현장연구, 실험실연구, 설문조사연구, 사례연구, 비실증적 연구	Farhoomand(1987)
	현장연구, 설문조사연구, 사례연구, 현장실험연구, 실험실 실험연구, 공학, 이론증명	임학빈, 심정필(1994)
	질적방법, 양적방법	Newman(1994)
	사례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연구, 현장실험연구, 실험실 연구	Chen, Grover & Sabherwal(1993)

(장명희 외, 1994; 채선희, 1996)

1. 인식론(epistemology) 관점에서의 고찰

인식론 차원에서의 연구방법론은 진리를 측정해나가는 과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무엇을 진리로 결정할 것인지에 필요한 가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철학적 기반의 존재론(ontology)에서 출발하는데, 즉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 연구대상이 되는 외부세계(object)와 나(subject)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기반에서 볼 때 인식론적 연구방법론은 실증주의(Positivist), 해석주의(Interpretive), 반증주의(Critical)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 (1) "실증주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기인해 나와 외부세계를 독립적으로 가정하고, 연구자는 객관적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인식론 차원에서 실증주의 연구는 객관적 연구자가 독립된 세계를 관찰해서 이를 통해 진리를 도출하고 이론을 일반화하며, 이때 과학적 방법인 계량적 측정이 주를 이루게 된다(Orlikowski & Baroudi, 1991). 결론적으로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개별현상을 보편적 법칙에 종속 시킴으로써 현상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가설 연역적 패러다임 형태를 취하고 있다.
- (2) "해석주의" 관점은 실증주의 관점과 여러 부분에 있어 대비되는 관점이다(Lee, 1991; Luthans & Morey, 1984; Evered & Louis, 1981). <표 2>에 나타나는 해석주의 관점의 특징에서 보여지듯이 해석주의의 저변에는 자연과학의 방법이 사회 실체 연구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즉 동일한 물리적 실체, 혹은 동일한 제도, 동일한 인간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관찰하는 인간,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주의의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직접 그 현상에 참여하여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Orlikowski & Baroudi, 1991). 이 때 모집단으로부터의 일반화를 거부하고 대신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구조를 이해하고자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전제도 두지 않으며, 순수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를 함께 수집한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주로 민족지적 연구나 사례연구, 참여관찰, 현상학 등이 이용되며, 연구 타당성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주관적 해석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은 현상 속에 있는 행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Chua, 1986).

<표 2>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실증주의	해석주의	연구자
추론, 가설 검증, 수학적 분석, 실험설계와 관련된 절차	민족지학, 해석학, 현상학, 사례 연구와 관련된 절차	A.S. Lee(1991)
객관적(objective)	주관적(subjective)	Burrell & Morgan(1979)
보편성(nomothetic)	개별성(idiographic)	Luthans & Davis(1982)
외부자(outsider), 연구자(etic) 관점	내부자(insider), 연구대상자(emic) 관점	Evered & Louis(1981), Luthans & Morey(1984)

(Lee, 1991)

(3) Popper(1968)로 대표되는 "반증주의"연구의 목적은 조직이나 학계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가정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변증법적 분석이 이용된다(Orlikowski & Baroudi,1991). 보다 근원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반증주의에서는 과학을 반증 가능한 일련의 가설이라고 생각한다. 반증주의에서는 절대적인 참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가장 유효하다거나 이전의 이론과 비교해서 더 나은 이론만이 존재할 뿐이다. 실증주의 관찰에 의한 가설은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긴 하지만, 관찰에 근거한 논리적 연역을 통해 보편법칙이나 이론이 지지 될 수는 없으며 단지 지속적인 이론에 대한 반증을 통해 이론적 진보가 있을 뿐이다(차머스, 1985). 반증주의 연구에서 역시 해석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연구, 민족사적 연구, 사례연구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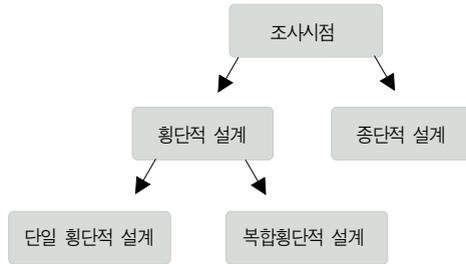
이러한 인식론 차원에서의 연구방법론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경영학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말했듯이 연구목적이 현상의 과정이나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라면 해석주의가 더 적합할 것이고, 현상에 대한 사실 검증이라면 실증주의가 더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증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었지만,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질적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 방법론(methodology) 관점에서의 고찰

방법론은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한 증거들을 모으는 데에 적절한 방법을 지시하는 가정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문제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 기준에서 볼 때,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방법론과 양적방법론으로 구분된다. 사회과학은 전통적으로 실증주의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양적방법론이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Husen, 1988). 양적방법론이란 현상을 수학적 혹은 논리적 구조로 표현하고 이를 수량화하여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 방법론이며, 반면 질적방법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론이다. 앞서 언급한 인식론과 양적, 질적방법론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시차적(Time) 연구설계 관점에서의 고찰

<그림 1>과 같이 연구방법은 조사시점에 따라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 시차적 연구방법 분류

횡단적 설계란 모집단의 표본으로부터 일회성의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는 다시 단일 횡단적 설계와 복합 횡단적 설계로 분류된다. 전자는 목표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응답자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가 일회에 걸쳐 수집되는 설계방법이며, 후자는 두개 이상의 표본들을 여러 시점에 걸쳐 수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단적 설계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의 변화 추세를 고찰하는 설계 방법이다(Marhotra, 1999). 다시점 연구라는 면에 있어서는 복합적 횡단설계와 종단적 설계가 유사하지만, 종단연구는 지속적인 연구로 연구자는 중간에 중단 없이 몇 달 혹은 몇 해에 걸쳐 그 현상을 관찰하고 참여하게 되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연구방법은 구분된다(Orlikowski & Baroudi, 1991).

이상으로 세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방법론을 분류할 수 있는 틀을 <표 3>에서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통계분석, 서베이, 설문, 인터뷰, 2차 자료 분석, 참여관찰 등의 구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며, 많은 연구들이 계량적 혹은 질적 접근이라 구분하는 분류는 이러한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방법론을 논할 때에 연구 대상을 이와 같은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의 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극히 피상적이고도 표면적인 접근이다. 기술적인 방법 이면에 있는 현상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인식론적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즉 연구방법론의 논의란 자료수집 혹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 차원과 더불어 이면에 내재한 근본적 인식론적 차원과 연구기간의 시차적 차원까지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틀은 경영학 연구 동향이 편중된 상황에 관해 재고함에 있어 단순한 일차원적 자료수집 및 분석차원에서의 분류에서 나아가서 근본적인 기준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다차원적 연구방법론 분류 프레임워크

분류기준	다차원적 연구방법론 분류
인식론(epistemology)	1. 실증주의(positivism) 2. 기타(해석주의(interpretivism), 반증주의(criticism) 등)
방법론(methodology)	1. 질적방법 2. 계량적 방법
조사시점(time)	1. 단일 횡단적(single cross-sectional) 조사 2. 복합 횡단적(multiple cross-sectional) 조사 3. 종단적(longitudinal) 조사

III. 다차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방법론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인식론과 전통을 같이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연구자료의 단순한 수집 및 분석방법을 논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앞서 논의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방법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하지 않고 용어를 혼용해 왔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개념 구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에 따른 질적연구방법론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질적연구방법론의 개념

먼저 다차원적 분류체계에 의한 연구방법론의 개념과 일차원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면에서의 연구방법론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인식론, 방법론 및 시차적 제반 차원에 근거한 분류 기준에 따라 '양적연구방법론' 혹은 '질적연구방법론'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에 근거한 '양적방법', '질적방법'과 구분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의 구분에 따라 기존 문헌을 재조명한 결과, Best & Kahn(1993)은 질적연구방법론을 행위주체자의 입장에서 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를 기술하고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 설명한다. 또한 Treichler(1992)는 질적연구가 학제간 통학제적(transdisciplinary) 그리고 반 학제적 영역이며, 초점에 있어 다중 패러다임적이고, 자연주의적 관점에 복무하고 인간 체험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전념하는 영역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한 자료수집 및 분석 측면에서의 질적 문제에서 나아가 실증주의에 비해 해주의적인 입장에서 연구 현상을 바라보려는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총체적인 조명을 위하여는 장시간의 연구기간이 요구됨을 아울러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모든 실증주의 관점의 연구가 양적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양적방법은 실증주의의 전유물로서 주로 이론의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질적방법은 현상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한다(박헌준, 이계구, 1996). 그러나 연구자는 양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추론해 나갈 수도, 또 양적방법론을 바탕으로 질적방법을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Jick,1979).

예를 들어 실증주의 관점에서 질적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영학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연구 논문들은 실증주의 관점에 기반 한 논문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례연구는 많은 사례수집을 통해 표면적 자료에 충실하여 귀납적 방법에 의해 보편성 있는 이론과 원리를 도출함에 근거한다(이학중, 1994). 이러한 사례연구는 실증주의 관점 외에 해석주의 및 반증주의 관점에서의 접근과 구분된다. 즉 사례연구는 연구 대상인 경영현상에 대한 정확한 통제 혹은 현상 내의 분리가 어렵거나 계량적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연구설계의 사전적 조사방법으로 주로 활용되어왔다. 이처럼 사례 연구란 특정 연구대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질적방법의 범주로 인식되지만(채서일, 1999), 경영분야에서는 가설검증의 연역적 절차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활용되어온 질적방법,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사례연구로 실증주의 관점에 근거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Orlikowski & Baroudi, 1991).

실증주의적 사례연구까지 포함한 영역을 광의의 질적연구방법론의 영역으로 본다면 해석주의적 및 비판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영역을 협의의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광의의 질적연구방법론이란 위에서 논의한 자료수집 차원에서의 '질적방법'과 인식론적 및 시차적 차원을 결합한 '질적 연구방법론' 간의 용어의 무분별한 혼용 상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방법의 성격은 후자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한국 경영학 연구에서 상당히 발견되는 사례연구는 자료수집 및 분석틀의 활용이 질적방법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과의 분리를 전제로 자료들의 표면적 내용에 의미를 두며 가치 중립적인 실증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관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다차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해 볼 때 질적연구방법론은 텍스트분석,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 세 가지 차원의 방법이 대표적이다(손병우, 1998).

특히 참여관찰은 연구자의 해석과정이 주된 핵심이 되며, 심층인터뷰는 기존 실증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사례연구 등에서 활용된 인터뷰에 비해 표면적 진술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보다 깊이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해석학적 인식론이 바탕이 된다.

<표 4> 양적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의 비교

연구방법 분류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인식론적 차원	실증주의적 경향	반 실증주의적 경향
연구접근	연역적	귀납적
문제제기방식	현상에 대해 얼마나 일반적 지식을 얻고 싶은가?	현상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고 자세한 지식을 얻고 싶은가?
연구목적	객관적 측정, 통계 등을 통한 사외적 사실의 변화 설명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

접근방법 및 연구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분리를 통한 편견 극소화 지향 • 연구자의 관점(etic)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상인 현상 속의 함몰을 지향 • 행위주체자의 입장(emic)에서 이해
연구진행절차	가설설정 후 자료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절차	연구주제 및 물음이 재 규정되고 자료수집, 분석 방향이 재 설정되는 순환적 절차
자료수집	설문지를 통한 연구, 관찰, 실험적 방법, 내용분석 등	현지연구법, 심층면접법, 참여관찰법 등
자료분석	이론으로부터의 가설검증 위해 통계적 기법 사용	내용과 성분 분석, 내용 흐름 제시
장 점	변인간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로 분명히 파악 가능, 이는 인과관계 구성 시 변인들을 통제 가능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론에 있어 전체주의(holistic) 관점에서 변인을 상황과 연관시킴으로써 양적연구의 한계 극복 •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으로 이론적 개방성 가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인들의 상황으로부터의 유리(다른 변인과의 관계 시 전혀 다른 작용할 가능성 존재) • 평균적 영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의 오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성의 제한(특수주의 오류) • 사례의 수가 증가할수록 인과관계의 복잡성 처리 어려움

정리하자면 해석학적 질적연구방법론은 첫째, 표면적 현실의 분석 및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 관심이 있다. 둘째, 연구자와 연구 대상을 분리함으로써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이분법적 관계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상호 영향적 관계를 전제한다. 셋째, 연구대상의 독립적 현상 뒤에 있는 상황적 구축을 인정한다. Shimahara(1988)는 특히 질적연구방법론의 특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현상 및 가치체계를 파악하려는 성향으로 본다. <표 4>는 이러한 질적연구방법론과 양적연구방법론의 가설 및 연구물음의 설정에 있어서 차이점을 간략한 내용이다.

IV. 국내 경영학 연구의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국내 경영학 연구의 연구 방법론적 동향에 관해 검토하기 위해 1991년~2001년까지 경영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연구방법론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경영학 주요 8개 부문에 해당하는 3000여 편의 모든 학술지를 다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영역에 관한 논문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영학연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다차원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조사된 내용은 아래 <표 5, 6, 7>과 같다.

<표5> '경영학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론 분석 1: 인식론 차원

연도	생산/계량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정책		회계		국제경영		경영정보		기타		합계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주의	기타	실증	개념연구
1991	2		5		3		1		1		6						3		21	3
1992			2		4		1		1		4		2		1		2		17	4
1993			3		6		5		2		4				1				21	5
1994	4		4		8		2		2		7				3		2		32	14
1995	1		3		5		6		2		5		3		2		1		28	5
1996	1		4		9		6		5		3		4		4		1		37	4
1997	1		3		2		5		5		3		3		5		3		30	6
1998			1		7		7		3		7		3		2		4		34	10
1999	5		7		10		6		2		4		1		7		1		43	6
2000	2		4		13		54		2		3		3		8		6		46	5
2001	1		5		9		13		6		4		1		10		1		50	3
합계	17	0	41	0	76	0	57		31		50		20		43		24	0	359	65
																			85%	15%

<표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경영학연구 논문 중 85%가 실증주의 연구이며, 나머지 15%가 모형연구나 역사연구에 해당하는 개념적 연구로 실증주의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경영학연구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분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인식론 차원 프레임워크 달라 결과 값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주의 연구는 귀납적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이론 도출적 연구와 연역적인 이론 검증적 연구 모두를 포함하며(김인수, 2000), 기타연구는 반 실증주의 연구로 앞서 제시한 해석주의와 반증주의 연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역사연구나 모형연구는 개념연구로 간주하여 다차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본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결과에 의하면 특히 반 실증주의적인 참여관찰 등에 의한 해석주의나 반증주의 연구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주의로의 편중현상이 이후의 자료수집 방법과 시차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표 6> '경영학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론 분석 2 : 자료수집 및 분석 차원

연도	생산계량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정책			회계			국제 경영			경영 정보			기타			합계					
	양 적	질 적	혼 합																														
1991	2			5			3			1					1	4	1	1									3			18	1	2	
1992	2			3	1				1	1			4			1		1	1								2			14	1	2	
1993				3			5		1	5			2			4					1								20		1		
1994	3	1		3		1	8			2			2			5	2				2	1			2				27	4	1		
1995	1			3			5			5	1		2			5			3		2				1				27		1		
1996	1			4			9			5	1		4	1		3			4		3	1			1				34		3		
1997	1			3			2			4	1		5			1	2		3		5				3				27		3		
1998				1			5		2	7			3			6	1		3		1		1	3		1		29	1	4			
1999	3	2		7			8	2		5	1		2			4			1		7				1				38		5		
2000	2			4			12		1	5			2			3			3		8				6				45		1		
2001	1			5			9			13			6			4			1		9		1	1					49		1		
합계	16	3		41		1	66	2	5	53	4		32	1	1	40	6	2	19		38	2	2		23		1	328	19	12			
총계				19			43			73			57			34			48		19				42			24		359(개)			
비율				-			-			-			-			-			-		-											91.4%	
																																	5.3%
																																	3.3%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주의 연구의 여파로 방법론 측면에까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인식론 차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실증주의였기 때문에 연구를 검증하는 자료수집 방법 역시 통계적 방법을 주로 하는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의 91.4%가 양적 방법론이었으며 이에 비해 질적방법론은 5.3%, 질적방법론과 양적방법론을 같이 이용한 연구는 3.3%로 양적방법론에 비해 질적방법론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차적 차원에서의 연구방법론 분석결과를 <표 7>에서 살펴보면, 전체 연구의 81.4%가 횡단적 연구 중에서도 단일횡단 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영학 연구가 자료수집 차원에서 대부분 설문방법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질적방법론이 부족한 연구풍토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경영학 연구의 대부분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실증주의, 그리고 자료수집의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양적방법론, 연구 시차적 관점에서는 단일 횡단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경영학 연구' 논문의 연구방법론 분석 3: 시차적 차원

연도	생산계량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정책			회계		국제 경영			경영 정보			기타			합계		
	단일 횡단	복합 횡단	종단 적	단일 횡단	복합 횡단																								
1991	2			4	1	3				1			1			6									3			20	1
1992					2	4				1			1			2	2	2			1				2			13	4
1993				1	2	5				5			2			3	1				1						17	2	2
1994	4			2	2	8	1			2			2			3	2	2			3			2			26	2	4
1995	1			2	1	4			1	5		1	2			4	1	3			2			1			24	4	
1996	1			3	1	8			1	6			4	1	2	1	4			4			1			33	4		
1997	1			1	2	1			1	5			3	2	2	1	3			5			3			24	6		
1998					1	6			1	6	1		2	1		2	2	3	1	1	1	2			2	2	21	5	8
1999	4	1	4	1	2	9	1			5	1	1	1	1		3	1			7			1			33	2	8	
2000	2				4	12	1			5			2			2	1		2	1	7	1		5	1	1	37	1	8
2001	1			3	2	9				12	1	6			2	1	1	1		9	1		1			44	2	4	
합계	16	1	20	1	20	69	2	5	53	1	3	26	1	4	29	7	14	17	1	2	41	1	1	21	3	292	14	53	
총계		17		41		76			57			31			50			20		43			24			359(개)			
비율		-		-		-			-			-			-			-		-			단일횡단			81.4%			
																							복합횡단			3.9%			
																							종단			14.7%			

V. 질적연구방법의 시사점

앞 장에서는 실증주의의 지배적 현상으로 인한 한국 경영학 연구방법론의 현실을 조망해 보고, 균형적인 연구태도의 발전을 위해 보완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인식론적 차원에 입각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험적 검증을 위한 양적연구방법이 연구되어온 만큼 그 양에 상응하는 질적연구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적 균형의 문제를 논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총체적 문화에 대해 발견적 접근이 필요한 경영 영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적합한 접근방법으로 관찰함으로써 연구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현상은 곧 연구방법론 활용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혹은 제도주의적인 학계의 분위기와 비교분석 시 적용되는 기준이 내포한 편견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연구영역에 대하여 대안적 방법의 연구의문조차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균형적인 연구방법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학문적 연구진행에 있어서 최적의 연구설계는 연구문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영학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현상은 일차적으로 과학적 방법론 선택을 전제로 한 후 그 방법론의 활용 가능한 연구 문제를 결정한다(Sliffe & Williams, 1995). 이와 같이 연구방법론이 먼저 결정되고 후에 연구문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인해 연구대상에 대한 '왜'의 문제보다 "어떻게"의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연구방법론이 먼저 선택되고 - 계량적 연구방법론의 지배적 선택 - 연구 문제의 결정이 뒤따르는 일반적 절차로 인한 연구방법론의 편중은 곧 연구 관심의 편중 현상을 초래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인식론적 질적연구방법론이 시사하는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왜"의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어떻게"의 문제를 논할 수 있도록 질적연구방법론에 적합한 연구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영학은 경영현장 해석에 관심이 있는 실천 학문이다.

경영학은 학문적 목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해석'의 문제를 전제로 하는 실천 학문이다(Van Manner, 1979). 계량적인 측정과 검증을 통하여 변수 간의 관계성을 밝힘으로써 학문적 엄격성을 준수하고, 일정한 범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을 연구하는 작업은 일반화를 통하여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경영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영현상을 동태적이고, 비안정적인 현실로 바라보는 총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천과학을 위한 질적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견해(etic view)와 연구대상자의 견해(emic view)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Luthans & Morey, 1984), 이는 연구대상자가 처해있는 경영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견해 없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경영의 실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경영현상이 왜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이 실천학문으로서 경영현장을 해석하려 할 때에 연구대상자의 적절한 견해를 통하여 경영현장을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상황 속에 들어가 해석학적 인식론에 근거한 참여관찰 방식으로 경영의 실재를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경영현장에 대해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동태적 변화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경영실체가 도출될 수 있다.

2. 경영현상의 프로세스와 변혁을 설명한다.

경영현상의 이슈들은 각기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현상으로 표현된다. 즉 경영현상은 경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의 일정 상호작용을 통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인식해야 한다(Luthans & Morey, 1984). 이때 프로세스란 어떤 경영현상을 초래하는 인과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이다. 프로세스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

과적인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경영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프로세스 및 변혁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사전에 일정한 이론적 분석틀이나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최영출, 1990). 사전에 가정한 것은 보고자 하는 경영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뿐이다. 참여관찰을 통한 연구 기간 중 자료 수집과 함께 연구자에게 부각되는 발견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이 전개된다. 이와 같이 경영현상의 이면에 얽힌 요소들의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론의 편견 없이 연구진행 과정 상 순환적으로 연구 물음을 재설계하고 연구자료를 재정립하는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가능하다. 경영현상 이면에 있는 프로세스의 역학적 설명을 위한 순환적인 연구설계의 융통성은 이미 결정된 변수들 간의 기계적인 상관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

3. 학제간(inter-disciplinary) 및 총체적(holistic) 관련성을 지향한다.

특정의 경영현상은 현상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포착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Luthans & Davis, 1982), 경영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 맥락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영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질적연구 관점에서 핵심인 '해석'과도 연관된다(Luthans & Morey, 1984).

양적연구방법론에 의존한 연구는 미리 규범적으로 연구환경을 개념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를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질적연구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경영현상 속의 활동주체가 현상적 경험을 조직하는 일련의 의미체계를 분석한다. 따라서 현상 속의 참가자가 자신의 시각으로 그를 둘러싼 현상을 지각하고, 개념화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체계를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의미체계를 기점으로 그에 따른 미시적 과정을 밝힐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때 해석의 독단성을 막고 보다 나은 해석을 위해서 학제간 관련성을 가지고 총체적 관련성을 지향하는 해석의 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학중(1994)의 연구는 경영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관련 학문과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체는 다양하고 구성적이며, 총체적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같이 일반화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각각의 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연구되어 질 수 있다(Lincoln & Guba, 1985).

4. 경영학 이론지식을 한국상황에 적용시키는 상황적 관점을 제시한다.

서구로부터 정립된 경영학 이론을 한국의 경영현상에 대입하여 검증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현상기술적 이론 정립이다(김인수, 2000).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는 한국적 개념 내지 독자적인 문제에 대해 이미 개발된 서구 연구 이론을 차용하여 실증주의적 계량연구에 주력해왔다. 서구식의 일반화된 이론으로 한국의 경험적 상황에 검증함에 있어서 단순히 몇 가지 변수들의 첨가와 삭제를 통한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는 것은 간혹 본질적인

문제규명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영현상을 한국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는 현상기술적 이론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 변수 상황의 고찰이 가능한 질적연구방법론은 한국의 경영현상을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한국적 현실에만 적용되는 특수상황이 아니며, 다른 국가에서 학문의 개발을 논의할 때에도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한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실천적 발견의 이슈를 논하거나, 경영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일련의 상호 작용적 프로세스로 인식해야 할 경우, 전체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상황에 맞는 현상기술적 이론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 질적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함의하는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문제의 본질적인 "왜"와 "어떻게"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가능하다.

VI. 연구방법론 상 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질적연구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왜"의 문제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영역이 있음을 논하였다. 본 장은 질적연구방법론의 보다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치중립성(Guba & Lincoln, 1988)이라는 이슈를 다룸으로써 향후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해석학적 관점에서 "전이"의 개념으로 가치중립성을 논의할 것이고, 양적연구방법론의 개념을 상호보완적으로 교환하여 방법론적 조화를 제언한다.

1. 인식론적 차원에서 '해석'이 아닌 '전이'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연구방법론의 참여관찰 및 심층 인터뷰, 텍스트 분석 등에서 연구자의 '해석'이 늘 동반되듯 질적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해석'이다(Luthans & Morey, 1984). 또한 질적연구방법론이 비판받는 주요 부분 역시 '해석'이다. 즉 해석의 결과는 해석자가 전유한 하나의 권력행사가 될 수 있는 주관적 영역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분리를 전제하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이 연구자가 보고 싶은 것을 봄으로 인해 연구자의 견해와 연구 대상의 실체와 다를 수 있다는 비판적 주장을 한다(Lee, 1991).

그러나 해석을 '전이(transference)'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해석의 주관적 성향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이를 통한 '해석의 자유'를 논할 수 있다. 전이란 정신분석학에서 자기의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사랑이나 증오 같은 감정의 표출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해석은 항상 '전이'의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Gallop, 1985). 전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연구대상과 연구자간의 관계가 분리적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몰입함으로써 상호영향을 받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연구대상에 전이시키고, 이로써 외형적 차원 이면에 숨겨진 현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의 고정된 이론적 틀에 맞추어 연구대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벗어나, 연구대상에 대한 전이를 통해 해석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손병우, 1998; Gallop, 1985).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고정된 이론적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아닌 '연구대상이 보고 싶은 것을 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해석을 전이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우려 대신에 연구자가 현상을 설명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현상을 나타내는 대상이자 스스로를 설명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식론적 질적연구방법론의 핵심 개념인 '해석'은 연구자가 참여와 중단적인 관찰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에 대한 전이를 가능케 함으로써 가치중립성을 지향할 수 있다. 이것은 양적연구방법론에서 일반화를 통하여 주관적 판단을 지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시각에서 관찰함으로써 그 맥락에 맞는 가치중립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즉 질적연구방법론의 향후과제는 맥락에 맞는 특수상황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일반화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계량적 연구방법론의 기준을 재해석하여 적용

연구의 접근방식을 논할 때에 실제적으로 질적연구방법이나 양적연구방법이나의 이분법적 구분은 참으로 모호하며, 연구자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구방법론의 선택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연구방법론은 연구문제의 성격에 맞게 조화롭게 활용되어야 한다. 즉 양적연구방법론이 그렇듯이 질적연구방법론 역시 단독의 방법으로 최종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두 연구방법론 간의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의 비판적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양적연구방법론의 개념, 즉 양적연구방법론의 기술적인 핵심 개념인 신뢰도 및 타당도의 개념을 질적연구방법론에 적용함으로써 두 연구방법론 간 상이성의 인정과 보완을 통해 조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계량적 연구방법론에서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등의 기준은 연역된 이론의 검증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 개념이다. 질적연구방법론에서는 인식 기반 자체가 이론상의 인과관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적 개념을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석의 자유를 동반한 전이의 수준에서 연구되기에 어려움이 많은 질적연구방법은 그릇된 '해석'으로 인한 지나친 주관적 성향에 대한 위험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기준과 해석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시된다(Guba & Lincoln, 1988). 예를 들어 장기간의 관여와 지속적인 관찰 속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현상 자체와 연구자에 의해 표현된 형태와의 일치도를 지향함으로써, 계량적 방법의 내적 타당성에 상응한 개념으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건이 중복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외적 타당성과 같은 전환성(transferability)을 추구한다. 계량적 방법의 신뢰성에 상응해서는 연구 제 단계에 있어서 연구팀

간의 일정한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을 집대성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상상에서 벗어나 전체맥락에 근거한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확실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게 하며 계량적 방법의 객관성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 인식론적 출발은 상이하나 질적연구방법론이 안고 있는 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계량적 연구방법론에서 활용하는 도구의 개념을 질적연구방법론에서도 활용하여 그 주관성을 보완할 수 있다.

VI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경영학 연구의 편향적 방법론 선택의 현실과 그로 인하여 누락되게 된 한계점 및 한국 경영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 부족하였던 질적연구방법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지적하고 있다.

실증주의에 입각한 양적연구방법론이 제시하는 인과관계의 증명 및 이론체계의 확립 등 많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위해 포기했던 본질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경영구조의 발전은 경영연구의 다양화와 함께 진화했다. 경영은 환경의 변화가 갖고 경영현상이 대규모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대상 및 문제의 세분화, 다양화 현상이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경영학이란 경영을 사회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전체적, 통일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적 이론 학문이다. 따라서 세분화된 경영학의 학문적 체계 - 재무, 인사, 조직, 마케팅, 전략, 경영정보, 회계 등 - 에서 출발한 현상 분석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의 제기가 필요하다. 경영을 경영으로서 보는 관점의 확립과, 경영존재를 경영존재로서 접근하는 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연결하여 경영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영현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총체적 노력은, 인식론적 차원에 기반하여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객관적 현상 뒤에 숨은 의미를 찾아내려는 질적연구방법론과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다. 양적 연구방법론에 지배적으로 의존하여왔던 오늘날 한국 경영학 연구방법론의 편중성에 대해 경영학계 내부에서 스스로 지적되기 시작하는 것은(김인수, 2000; 황호찬, 2000),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했던 질적연구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본질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론이 제공하는 실무적 시사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영현상에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 시 다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향후 전략의 방향, 조직적 이슈 그리고 제반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와 재규정에 유용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경영학 연구의 방법론적 흐름을 종합해보고 질적 연구방법론을 재고해 봄으로써, 한국적 경영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고 있던 혹은 도외시했던 총체적 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재인식하고, 아직 연구방법 자체가 충분히 개

발되지 않은 분야이니 만큼 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기존의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독자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주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질적인 연구질문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연구의 출발시점에 이미 계량적 연구방법의 적용을 전제함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연구질문을 선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본질적인 문제 접근을 위하여 연구방법론의 균형적 선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인수(2000), "한국의 경영학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 경영학연구, 제 29권, 제 3호, 8월, 283-314
- 박현준, 이재구(1996), "기업윤리에 대한 연구방법론 탐구", 경영학연구, 제25권, 제3호
- 손병우(1998),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연구방법의 개념적 기반", 사회과학논총, 제9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37-153pp
- 앨런 차머스 저, 신일철, 신중섭 역(1985), 현대과학철학, 서울:서광사
- 이학중(1994), "한국경영학과 사례연구", 경영학연구, 23권, 2호, 117-128
- 장명희, 정현식, 이등만(1995),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정보시스템학회, Vol.4, No.1, 3-25
- 채서일(1999),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서울
- 채선희(1996),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재정립을 위한 개념적 접근-질적,계량적 방법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4, No.5, 281-297
- 최영출(1990), "행정학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경험주의와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토지행정학회 논문집 제3호
- 황호찬(2000), "경영학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방법론 및 패러다임의 탐구", 경영학연구, 제29권, 제2호, 153-169
- Best, J.W., Kahn, J.V.(1993), Research in Education, Allyn & Bacon
- Chua, Wai Fong(1986), "Radical Developments in Accounting Thoughts", The Accounting Review, Vol. 61, 601-632
- Despande Rojt(1983), "Paradigm Lost: On Theory and Method in Research in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47, Fall, 101-110
- Evered, R, Louis, MR(1981), "Alternative Perspectives in the Organizational Science: Inquiry from the inside and inquiry from the Outsid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6, 385-395
- Gallop, J.(1985), Reading Lacan, Ithaca: Cornell Univ. Press
- Guba, E.G., Lincoln, Y.S.(1985), "The countenance of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 judgment, and negotiation". Paper presented at evaluation network annual meeting, Toronto, Canada
- Guba, E.G., Lincoln, Y.S.(1988), Do inquiry paradigms implies inquiry methodologies?. In DE, Fetterman. (Ed.). The silent scientific revolution. Beverly Hills, Calif. : Sage, 89-115

- Husen, T.(1988), "Research paradigm in educ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Pergam, 5051-5056
- Jick,T.D.(1979),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602-611
- Lee, A.S.(1991), "Integrating Positivist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Science, Vol.2, No.4, November
- Lincoln, Y.S.,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owe, EA, Tinker, AM.(1977), "Siting the Accounting Problematic: Towards an Intellectual Emancipation of Accounting",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Vol.3, 263-276
- Luthans,F., Davis,T.R.V.(1982), "An Idiographic Approach to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The Use of Single Case Experimental Designs and Direct Measur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7, No.3, July, 380-391
- Luthans,F., Morey, N.C.(1984), "An Emic Perspective and Ethnoscience Method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9, No.1, January, 27-36
- Marhotra, NK(1999), Marketing Research: An Applied Orient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Orlikowski, W., Baroudi, J.J.(1991), "Study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organizations: Research approaches and assump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 No. 1, pp.1-28
- Shimahara,NK(1988), Anthroethnography: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In R.Sherman & R.B. Webb,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Focus and Methods, The Falmer Press
- Sife,B.D. & R.N. Williams(1995), What's Behind th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reichler,PA, Nelson,C., Grossberg,L.(1992), "Cultural Studies," In P.A. Treichler, Nelson & Grossberg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Routledge
- Van Maanen, J.(1979), "Reclaiming Qualitative Method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A Prefa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4, No.4, December, 520-526

Reconsideration of Research Methods in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 A Stud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Kym, Hyogun *
Lee, Hyunju **
Moon, Yunji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anagement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some alternative research methodologies to complement both the level of academic inquiry and that of practical usefulness. Proposed are the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framework originated from (1) the epistemological, (2) methodological and (3) time dimension.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growth in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the research community is critically influenced by both dominant perspective of positivism and dominant quantitative-oriented research methodology. Although conventional quantitative studies have contributed to the logical verification and generalization of managerial theories, there still exist research needs exploring the profound meaning of experiential phenomena or human behaviors in the managerial context.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suggest some complementary research methodologies that would grasp the holistic approach to business organizations for balanced academic or practical development. The redefined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are illustrated in terms of the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framework. Finally, the benefits that qualitative methodology can provide are discussed.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framework

*, **, *** College of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